

# 광주지역 백화점 내달 2일부터 가을 정기세일

## 신세계, 세일물량 작년보다 15% 늘려

## 롯데, 출산용품 30% 할인·이벤트 다채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등 광주 지역 백화점 업계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백화점 업계는 이번 세일 기간 추석연휴 특수로 비뚤린 모처럼의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등산철을 맞아 백화점별로 아웃도어 상품전을 마련하고, 사계절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광주신세계는 세일 물량을 지난해보다 15% 확대하고 브랜드별 기획상품 물량을 28% 늘렸다.

이번 세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본격 겨울 수요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아웃도어 행사를 세일 초반 실시하는 것.

1층 이벤트 홀에서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아웃도어&트레킹 대전'을 진행하며 K2·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라푸마·컬럼비아 등 20여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 특가 상품을 30~70% 할인 판매한다.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란제리·데님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16일부터 20일까지는 '핸드백 대전'도 열린다. 또 이번 가을세일에서는 영

캐주얼 브랜드인 디젤과 아르마니진, 유아동 브랜드 에프와, 주방매장의 삼미·골든벨·퀵센스가 각각 30%의 세일을 진행하며 스카프·양말·손수건·스타킹·모자 등 패션잡화 브랜드와 벨리시앙·테시데·에스칼리에·쁘뜨레·조순희·크레송·GGPX 등도 20% 가량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본·킨록·레노마캐주얼·레드옥스·지이크 등 남성브랜드 및 셔츠·타이

브랜드와 유·아동 매장의 빈·엘르·파코라반베이비·압소바·스트라이드 브랜드도 각각 20% 세일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최대 30%에서 10%가량의 할인으로 가을세일 전면전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가을 정기세일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이벤트를 확대 진행한다.

먼저 '롯데 매지 페스티벌'을 열고, 세일 주말마다 전 층에서 마술공연을 진행한다. 고객이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간단한 마술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 강좌도 함께 진행한다. 1층 팝아트에서는 메이크업 강좌를 진행한다. 면접, 소개팅 등 상활별 맞춤

형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문가를 통해 직접 전수한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갖고, 출산용품 3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수입 유아모자 경매 이벤트, 임산부를 위한 임신 육아 강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연다. 지역 최대 박람회도 진행한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아웃도어 박람회', 9일부터 13일까지 '구두 박람회', 17일부터 20일까지는 '해외명품 박람회'를 각각 진행한다. 박람회에서는 불황 속 알뜰 쇼핑족을 위해 최대 80% 특별할인 혜택과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해 실속 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추석때 초과지출했나

### 9월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만에 하락세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을 지수화한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02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CSI가 하락한 것은 지난 4월(104→102) 이후 처음이다. CSI는 5월 104를 거쳐 6월에는 13개월 만의 최고치인 105로 오른 뒤 8월까지 제자리걸음을 했다. CSI는 100이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

구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면 그 반대다. 실제로 세부지표인 소비자지출전망CSI는 8월 109에서 9월 105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교육비(104→101), 의료·보건비(111→107) 등 꼭 필요한 항목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주거비는 8월 106에서 9월 116으로 큰 폭 상승했다.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는 8월 91에서 9월 89로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99→97) 역시 악화했다. /연합뉴스

# 3000만원 넘는 기부금 30% 세액공제

## 세법개정안...두배 확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의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은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에 내

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000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

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 때는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할 때에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이 방법을 세법개정안 최초안 발표 직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6일 (주)광주신세계 '플라스틱 아일랜드' 매장 에서 27일 단 하루 4만5000원에 판매되는 가을 트렌치코트를 미리 선보였다. 매년 두 차례 가을상품을 30~70% 할인 판매하는 'LAP·아이올리 패밀리 대전'은 27일부터 닷새간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크게 늘어

내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9월보다 크게 늘어난 1만6000여가구에 달해 전세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동산캐브는 10월 전국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입주물량이 31곳, 총 1만6399가구에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달(1만510가)에 비해 5889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작년 10월(1만3007가)보다도 3300여가

구 많은 물량이다. 지방 입주 물량은 20곳, 9101가구에 달해 전달 대비 960가구가 늘어난다. 경남이 5곳 2562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 3곳 1244가구, 광주 2곳 1231가구, 울산 3곳 1221가구 등이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서는 '충흥S-클래스'가 내달 말부터 입주한다. 전용면적 84㎡ 총 801가구로 구성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 광주·전남 건보료 고액체납자 25명 4억8000만원

광주·전남지역의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는 25명(법인 포함)으로, 이들은 4억8000여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체납자는 광주에서 개인 6명, 법인 1명 등 7명이고, 전남에서 개인 6명, 법인 12명 등 18명이다. 목포에서 자영업업

하는 K씨는 토지건물 재산과표가 10억7000만원에 달하고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500여만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의 보험료를 철저히 징수해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하고 보험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8월 광양항물동량 전년비 19.5% 늘어 전국 무역항 8.1% 증가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1억87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은 석유류, 석유제품류, 석유가스 등 수출입 물량 증가로 물동량이 각각 9.7%, 3.8%, 25.1%, 14.4% 증가했다.

반면 울산항은 원유, 석유의 수출입 물량이 줄어 물동량이 4.3% 감소

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모래, 자동차는 각각 8%, 49.1%, 33.4% 늘었지만, 철재류와 고철은 10.4%와 25% 줄었다.

한편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증가한 191만9000 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물동량이 불라탄 등 태풍의 영향으로 저조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화물별로 보면 수출입화물은 114만9000 TEU로 7.9% 늘었고 환적화물은 76만2000 TEU로 14.8% 증가했다.

항만별로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환적화물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보다 8.2% 증가한 144만 5000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19.5% 늘어난 19만5000 TEU를, 인천항은 20.3% 증가한 18만2000TEU를 처리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07.32 (+9.26)	▲ 코스닥지수 532.83 (+5.56)	▲ 금리 (국고채 3년) 2.85% (+0.01)	▲ 원·달러 환율 1075.10원 (-1.60)
----------------------------	---------------------------	--------------------------------	-------------------------------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무대는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동(합동점) 삼일로 9구구 02276-0367 9 강남동(강남구) 02347-5110 중로2(중구) 02703-0220 송파동(송파구) 2번 출구 02419-3388 선릉동(선릉역) 2번 출구 02365-1838 경인 안양동(안양시) 03121-2288 부평동(부평구) 03217-5110 수원동(수원시) 03121-6655 연평동(연평구) 03149-0110-1 평택동(평택시) 031698-6110 용인동(용인시) 031306-1000 오산동(오산시) 031378-4183 부안동(부안군) 03329-4400 남양주동(남양주시) 03946-0198 의정부동(의정부시) 031818-6800 서면동(서면동) 018-0016 남포동(남포동) 051266-7200 울산 동산동(울산광역시) 05226-2283 경남 마산동(마산시) 05537-0000 진주동(진주시) 05546-4970 대구 동인동(동인동) 05345-4440 상곡동(상곡동) 053426-1511 남동동(남동동) 053425-7576 경북 포항동(포항시) 05464-5110 남동동(남동동) 054639-2246 광주 동구동(동구동) 02225-5110 광주 동구동(동구동) 02225-5110 대전 동구동(동구동) 04224-5110 대전 동구동(동구동) 04222-3388 대전 동구동(동구동) 04225-4300 홍성 동면동(홍성군) 041653-2988 광주 동구동(동구동) 041652-5110 충북 청주동(청주시) 04322-117-8 충청남도 동면동(동면동) 041382-4144 강원 강릉동(강릉시) 03394-0586 순천동(순천시) 03253-5110 제주 제주시동(제주시) 06473-4366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FDA 미국식용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형공통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광역시 071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광역시 062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